

탐구기반 지리답사 기획 프로젝트를 통한 지리답사 교수내용지식 함양

김민성*

Fostering Fieldwork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through an Inquiry-Based Geographic Fieldwork Design Project

Minsung Kim*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활동 중심의 탐구기반 지리답사 기획 프로젝트가 예비교사들의 지리답사 교수내용지식(Fieldwork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FPACK)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FPACK은 지리학 콘텐츠, 교수학습전략, 지리답사를 건설적으로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지리답사를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이다. 지리교육의 특징적 교육학인 지리답사를 의미 있게 교육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리교사들의 FPACK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활동 중심의 답사에 주목하고, 예비교사들이 능동적으로 탐구기반 지리답사를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반성적 성찰문을 반복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예비교사들은 지리답사의 의미를 탐색하고, 탐구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며, 지리 개념을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나아가 이러한 성찰들을 의미 있게 결합하여 FPACK을 함양하고 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성적 성찰문을 바탕으로 생성한 워드 클라우드 역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는 지리답사 맥락에서 교사 전문성을 논하고, 탐구기반 답사 디자인 활동이 FPACK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시도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지리답사, 탐구, 지리 지식, 지리답사 교수내용지식, 교사 역량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benefits of an inquiry-based geographic fieldwork design project on the development of geography pre-service teachers' fieldwork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FPACK). FPACK is defined as the teacher's capability to design and implement geographic fieldwork effectively, combining geographic content,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nd geographic fieldwork. A teacher's FPACK is a key prerequisite to introduce geographic fieldwork, or a signature pedagogy in geography, effectively into the classroom. This study focuses on a student-centered fieldwork and asked the participating pre-service teachers to design an inquiry-based fieldwork.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articipants' reflective journals through repeated content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pre-service teachers had opportunities to examine the meaning of geographic fieldwork, contemplate the nature of inquiry, and understand geographic concepts at a deep level. Furthermore, they combined these reflections meaningfully, and cultivated and expressed FPACK. The word cloud based on the text of reflective journals also supported the findings. This research merits inclusion to the literature because it is an innovative attempt to examine teacher expertise in the context of geographic fieldwork and analyze the impacts of an inquiry-based geographic fieldwork design project on FPACK empirically.
Key Words : Geographic fieldwork, Inquiry, Geographic knowledge, Fieldwork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Teacher capability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nskim@snu.ac.kr)

I. 서론

지리답사는 지리교육의 상징적이면서도 특징적인 학습전략, ‘시그너처 페다고지(signature pedagogy)’이다(Komoto, 2009; Seow *et al.*, 2019). Shulman(2005a; 2005b)은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교육학의 제한점을 지적하고, 교과별 학문 특성에 맞춘 교수학습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특징적 교육학이라 개념화하였다. 특징적 교육학은 해당 과목의 수업 장면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pervasive), 상시로(habitual)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전략이다. 예컨대, 법교육에서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활용하여 복잡한 소송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학습해 나가는 전략을 장려한다. 의학교육에서는 숙련된 교수나 레지던트들이 초보자들과 함께 환자 상태를 점검하러 다니는 회진(clinical round)이 빈번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특징적 교육학은 각 학문의 고유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초심자들을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교수전략이다. 그렇다면 지리교육의 특징적 교육학은 무엇일까? 일찍이 Sauer(1956)가 지리학자 양성에 있어 답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지리답사는 지리교육의 고유하면서도 상징적인 교수법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구성주의 사조가 대두한 이후 역량이 강조되는 최근의 교육학적 흐름 속에서 학생 탐구에 기반한 지리답사는 지리교육의 특징적 학습전략으로 여러 연구자들의 폭넓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종원, 2016; Casinader and Kidman, 2018; 김민성·김종근, 2021).

지리답사의 교육적 함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리답사를 활용한 프로젝트에서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낳고, 이는 효과적인 학습의 기반이 된다(Oost *et al.*, 2011). 장소 탐색을 통한 공간 요소의 발견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 몰입도를 높여 심층 학습(deep learning)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right and Hodge, 2012).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실제 현장에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경험(예: 토양을 직접 만져보고 밟아보는 활동)은 학습한 개념을 체화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책으로만 개념을 배울 때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로 이어진다(Wang *et al.*, in press). 기존의 문화적 맥락이나 관습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경관의 탐색은 자신의 위치성(positionality)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도 한다(Golubchikov, 2015). 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답사는 시간 관리,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등 전이가능한 역량을 개발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Houser *et al.*, 2011; Marvell *et al.*, 2013). 이러한 전이가능한 역량은 다양한 직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 지리학을 진로교육과 연계할 가능성을 열어준다(Phillips and Johns, 2012).

이처럼 의미 있는 학습전략인 답사가 지리교육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교육 현장의 ‘문지기(gatekeeper)’인 교사의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리 교사들이 답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디자인하며, 수행하는지를 탐색하고, 나아가 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지리답사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Oost *et al.*, 2011). 그러나 지리답사에 대한 오랜 관심에도 불구하고 교사 전문성의 측면에서 지리답사를 논한 연구는 그리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지리답사 기획 및 실행과 관련된 교사 전문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실증적 시도이다. Kim(2022)은 효과적으로 지리답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리교사의 전문성을 ‘지리답사 교수내용지식’, 즉 ‘FPACK(Fieldwork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이라 정의하고, FPACK 함양을 위해 예비교사들이 탐구기반 지리답사를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Kim의 연구를 확장하고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실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활동 중심의 탐구적 지리답사 디자인 프로젝트가 예비 지리교사들의 FPACK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예비교사들이 ‘지리 개념’을 ‘탐구’라는 교육학적 원리를 염두에 두면서 ‘답사’와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실제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FPACK의 개념을 제시하고, 탐구적 지리답사의 교육학적 함의를 살펴본다. 이후, 본 연구의 학습모듈을 소개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참여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탐구기반 지리답사 디자인 활동과 FPACK의 함양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지리답사의 맥락에서 교사 전문성을 논하고, 탐구적 답사 디자인 활동이 FPACK의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시도이다.

II. 지리답사 교수내용지식(FPACK)과 학생활동 중심의 탐구적 지리답사

지리답사 교수내용지식은 지리학 콘텐츠, 교수학습전략, 지리답사를 건설적으로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지리답사를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이다(Kim, 2022). 이는 각 교과와 교과의 고유한 수업 실행 전략을 강조하는 Shulman(1986)의 교수내용지식에 지리답사의 맥락을 더한 전문화된 지리교사의 능력이다(그림 1). 따라서 효과적인 지리답사 교수내용지식의 개발을 위해서는 학습대상이 되는 지리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교육학 전략의 의미와 확장성을 파악해야 하며, 지리답사의 학술적·교육적 의미, 최신 경향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리 개념, 교육학 이론, 지리답사를 교육 맥락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탐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리답사에 주목한다(Fuller *et al.*, 2006; Reilly *et al.*, 2016; Casinader and Kidman, 2018). 탐구에 기반한 학습은 교수학습 전략,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 가치와 태도의 측면 등을 포괄하여 특징적 교육학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이다(Crippen and Archambault, 2012). 탐구적 지리답사에서 학생은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경관을 해석하며, 지리학습을 주도하는 주체가 된다(Oost *et al.*, 2011). 능동적

지리답사를 통해 학습자는 경관을 이해하는 안목을 고양하고, 효과적으로 지리 개념을 이해하며, 의미 있는 기능과 관점을 습득할 수 있다(Mires, 2004). France and Haigh(2018)는 지리답사의 역사적 변천을 정리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된 최근의 지리답사 경향은 테크놀로지 활용 지리답사, 리서치 도제식(research apprenticeship) 지리답사, 성찰적 해외답사였다. 이러한 최신 전략들은 모두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탐구를 바탕으로 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지리답사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은 의미 있는 학생 탐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수집, 시각화, 자료 공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리서치 도제식 지리답사는 학생들이 교수의 연구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리학자처럼 탐구하는 경험을 강조한다. 해당 분야의 연구자가 문제를 발견하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며, 논리적인 결론에 다다른 탐구를 도우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자신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공간을 벗어나 낯설고 이국적인 지역을 탐색하는 해외답사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감정적 탐구, 비판적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탐구기반 지리답사의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Kim(2018)은 탐구적 지역 조사 활동을 통해 지리학습과 현실 세계를 연계하는 서비스 러닝(service learning)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지리 개념 및 기능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주제(예: 디지털 등반 경로 개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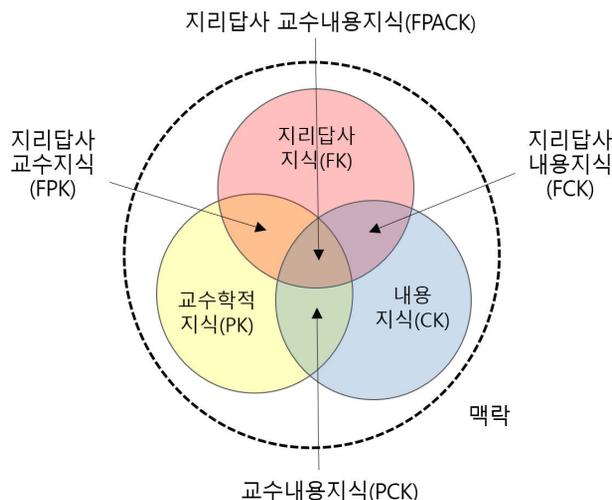


그림 1. 지리답사 교수내용지식

출처 : Kim, 2022:63.

분석을 통한 쓰레기 재활용함 위치 선정 등)를 선정 한 후,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산출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능동적인 활동과 탐구에 기반한 야외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적 관점에서 지리 개념을 이해하고, 지리학의 유용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Holloway *et al.*(2021)의 연구는 도심공동화 학습을 위해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 비어있거나 버려진 빌딩의 위치와 현황을 조사하고 그것을 지도화하는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 학생들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WebGIS를 활용해 히트맵을 만들어 토지 이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은 실제 세계에서의 다양한 탐구에 기반한 학습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Park(2022)의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 생활환경에서 대기오염이 심할 것 같은 지역을 선정하고, 실제 답사를 통해 공기 질 데이터를 수집한 후, 분석 결과를 스토리맵으로 시각화하고 결과를 공유하였다. 학생들은 건강과 직결되는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떤 곳에서 오염이 심할지, 어떠한 일상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학생활동 중심의 지리답사 연구가 수행되었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었다(Phillips and Johns, 2012).

탐구적 지리답사가 효과적인 학습전략이라면 지리교사는 답사를 의미 있게 기획 및 디자인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리교사는 가르치고자 하는 지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교수학적 전략을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현장 답사의 맥락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개념을 야외조사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교사는 도시재생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현상을 가장 잘 탐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새로운 도시공간 계획에 대한 거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인터뷰, 변화하는 지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경관 스케치 등 학생들이 해당 개념을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Kim, 2022). 즉, 가르치고자 하는 지리 개념, 도입하고자 하는 교수법, 그리고 지리답사의 활용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Dickerson *et al.*(2007)의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의미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 탐구에 기반한 지리답사 워크숍에

참여하여 FPACK을 함양한 Jill이라는 교사는 야외조사를 통해 풍화, 침식, 퇴적물 이동과 관련된 개념을 학습하는 수업을 기획하였다. 그런데 답사지역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에 직면해 예상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Jill은 답사지 주변에서 방과제를 발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퇴적물의 유형 및 이동 양상을 해안 지형의 맥락에서 관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행은 돌발 변수가 발생한 현실 세계의 맥락에서, 가르치려는 지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탐구기반 답사를 즉흥적으로 창조해낸 FPACK의 발현이었다. 이처럼 맥락에 따라 학습 콘텐츠, 교수학습전략, 지리답사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전문성인 FPACK은 지리교사에게 필수적이면서 특징적인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Oost *et al.*, 2011; Seow *et al.*, 2019; 김민성·김종근, 2021).

III. 연구방법

1. 참여자 및 배경

부산 지역에 위치한 21명의 사범대학 예비교사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지리교육 전공자들로 지리교사 희망자들이었다. 참여자 중 19명은 3학년, 2명은 2학년이었고, 성별 구성은 남학생 5명, 여학생 16명이었다. 참여자들은 지리교육을 전공으로 하기에 기본적으로 지리답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능동적으로 지리답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은 없는 상태였다.

2. 학생활동 중심 지리답사 기획 프로젝트

지리교육과정 및 평가 수업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활동이 중심이 되는 탐구기반 지리답사를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해당 강좌는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및 다양한 평가 방법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역량 함양과 과정중심평가 등과의 연계 속에서 지리답사를 논하였다. 지리교사는 지리교육의 대표적 학습전략 중 하나인 지리답사를 의미 있게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견지에서 학습자가 중심

이 되는 교육적 지리답사를 기획하고 탐구적 답사 자료 집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표 1은 본 연구 프로젝트의 개요를 보여준다. 우선, 연구자가 지리답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의미를 소개하고 다양한 답사의 유형을 논하였다. 특히, 구성주의 사조 하에서 강조되는 학생 탐구 중심의 답사, 새로운 답사의 유형으로 주목받는 다감각적 답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지리답사를 소개하여 참여자들이 답사에 대한 관점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테크놀로지를 답사에 활용하는 전략, 심리지리학¹⁾에 기반한 창의적 답사 전략 등 최근의 새로운 연구 경향도 소개하였다.

답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소개 후, 탐구적 지리답사를 실제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탐구 문제 설정, 데이터 수집, 결과 시각화 등 일련의 탐구 수업 절차를 지리답사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탐구적 지리답사의 예시로 참여 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학생들에게 익숙한 김해 외국인 거리를 사례로 어떤 탐구 활동이 가능할지를 토론하였다. 예를 들어, 김해 외국인 거리의 이국적 간판 경관 조사, 본국으로의 송금을 위한 특이한 은행 운영 시간 파악,²⁾ 외국 음식의 후각경관 탐색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 기획 아이디어를 논의하였다.

지리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한 후, 부산 영도의 깡깡이 마을을 실제 답사하면서 연구자가 탐구적 지

리답사를 모델링하였다. 깡깡이 마을은 산업 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곳으로 이곳의 답사를 통해 지리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탐구하였다. 깡깡이 마을이라는 별칭³⁾은 소리에 기반한 것으로 답사에서 소리 경관과 연계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면서 다감각적 답사의 가능성 또한 안내하였다(김민성·김준근, 2021).

마지막으로, 모델링 답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모듬을 이루어 스스로 탐구기반 지리답사를 디자인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구체적 답사지점 및 경로, 탐구적 학생활동을 포함한 답사 자료집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그림 2는 한 모듬이 개발한 답사 경로 및 개별 지점에서의 정보를 구글어스에 매쉬업한 화면이다. 이 모듬은 부산 영도구의 다양한 외국어 안내문, 곳곳에 위치한 선박 수리 업체, 지역명을 보여주는 가게 간판(예: 청도식당, 정선식당)을 통해 이곳의 문화 지역성을 파악하는 답사를 디자인하였다. 이처럼 각 모듬은 자신들만의 탐구기반 답사 주제, 경로, 활동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듬별로 개발한 답사 디자인을 공유하고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문을 제출하였다. 반성적 성찰문은 특별한 양식이나 제약 없이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예: 프로젝트의 장단점, 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지리답사 디자인 프로젝트 개요

모듬	내용	수업유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답사의 의미 지리답사의 유형(예: 단체관광 여행(Cook's tour), 탐구기반 답사, 다감각적 답사 등) 지리답사의 새로운 경향(예: 테크놀로지 활용, 심리지리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토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구적 지리답사 디자인을 위한 고려사항 및 실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구 문제 설정하기 현장에서 데이터 수집하기(예: 지역주민 인터뷰, 사진찍기, 스케치하기, 녹음하기 등) 답사 결과 시각화하기(예: 다이어그램, 그래프, 약도, 위성영상, 구글어스 매쉬업 등) 지리답사 예시: 김해 외국인 거리의 특징적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브레인스토밍 실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영도구 깡깡이 마을에서 지리답사 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다감각적 요소의 활용(예: 소리, 냄새, 새로운 시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답사 브레인스토밍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지리답사 디자인하기 탐구기반 답사 자료집 개발하기 반성적 성찰문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과제 성찰

출처 : Kim, 2022:65.



그림 2. 문화 지역성 탐구를 위한 답사 사례

3. 분석

첫째, 참여자들의 반성적 성찰문을 반복적 내용분석법을 통해 분석하고, 의미 있는 테마를 추출하였다(Krippendorff, 2004). 성찰문 텍스트의 반복적 읽기를 통해 주목할만한 반응을 추출하여 군집화하고 관련 발췌문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테마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런 과정은 반복적 분류(iterative categorization)를 통해 체계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질적 접근법이다(Neale, 2016). 분석의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 본 연구자와 교육학 전공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코딩을 진행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주제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출된 테마 및 명칭의 타당성, 관련 발췌문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였다.

둘째, 성찰문 텍스트를 기반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는 주요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성찰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Kim and Shin, 2016).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더 크게 시각화됨으로써 참여자들이 어떤 용어를 자주 활용하였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량의 한글 텍스트를 워드 클라우드로 변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 프로그램을 활용해 워드 클라우드 코드를 생성하고 성찰문 텍스트를 시각화하였다. 의미가 없는 용어(예: '이후'와 같이 내용적으로 통찰력을 주지 않는 용어, 조사 등)는 제외하고 15회 이상 출현한 단어를 중심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이후 워드 클라우드에 포

함된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맥락과 연계될 수 있을지를 해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반성적 성찰문의 주요 주제 추출

1) 지리답사의 의미에 대한 탐색

탐구에 기반한 지리답사 기획 프로젝트는 답사의 함의, 유형, 유용성 등을 포함하여 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 지리답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이 되었다. 지리학의 진수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지리답사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다음의 발췌문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준다.

지리학이라는 것이 지역, 장소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탐험에서 학문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도 지역을 답사하고, 탐구해봄으로써 그 지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지리라는 학문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답사를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답사를 실제로 학생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답사 이후 학생들이 배우는 바가 많고, 재밌었다면, 학생들의 답사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질 좋은 답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참여자 10).

답사를 막연히 보고 즐길 때는 몰랐지만,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구성해보는 과정을 통해 답사의 본질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답사가 주는 이점을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면서 답사를 계획하였다. 미래에 교사가 되어서 답사를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교과서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더욱 넓은 사회와 세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참여자 4).

나아가 참여자들은 답사의 다양한 유형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많은 참여자들이 최근 새롭게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감각적 답사에 깊은 인상을 받고 지리답사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도 답사를 가면서 다감각적 답사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영도대교를 통해 영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산의 바다 내음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부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영도다리의 현인 동상에서 ‘군세어라 금순이’ 노래가 울려나왔는데, 당시 부산 피난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직접 영도에 와서 노래를 들으니 영도다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던 피난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참여자 6).

사실 생각해 보면, 답사만큼 지리학이라는 학문을 잘 표현하는 것도 없다. 직접 현장을 다녀보며 어떤 지리학적 개념이나 배경이 담겨 있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면서 더 현장감 있는 지리학을 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 다녀온 답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감각적인 요소를 활용한 답사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노래로, 짹짹이 소리로, 해당 지역에 대한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사실 나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다. 노래로, 짹짹이 소리로 그곳의 현장감과 장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답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리적 지식이 아닐까 생각했다(참여자 8).

2) 탐구의 본질에 대한 고민

본 프로젝트가 탐구에 기반한 답사 전략을 기획하는 활동이었기에 참여자들은 탐구의 의미와 실제 적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생 중심 수업전략은 현재 교육과정 및 현장 수업 실행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이론으로 접한

다양한 탐구수업 전략들을 실제 맥락에 적용하면서 그 가능성과 제한점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이상적인 형태의 탐구와 그것의 실제적 구현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고민 자체가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학생 성찰문의 사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이질적인 문화경관이 나타나는 것을 토대로 어떤 탐구학습을 진행할지에 대해 의논하였다. 하지만 탐구학습의 특성상,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탐구를 진행하며 유의미한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온전히 탐구학습을 진행하기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하나로 이끌어갈 학습 방향 역시 모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답사 자료집은 교사의 개입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단서를 조합하여 답사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이어서 진행되는 답사 혹은 답사 이후 활동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개념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탐구적인 지리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참여자 8).

탐구란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적절히 표현하여 학자처럼 사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탐구형 답사 자료집을 개발하려고 하니,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부터 충돌하기 시작했다. 또한, 교사가 의도하는 답사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 단서를 학생에게 직접 주면 이것이 과연 ‘탐구’라는 정의에 맞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이 역시 조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는 바였으며, 탐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았다(참여자 9).

3) 지리 개념을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는 기회

연구 참여자들은 효과적인 지리답사의 기획을 위해 지리 개념을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탐구하였다. 특정한 지리 개념이나 관점을 실제 세계에서의 중고등학교 대상 활동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이나 관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답사 코스나 활동에 연계된 지리 개념, 관점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다. 다

음의 참여자는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에서의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답사를 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었던 것은 ‘오버투어리즘’ 문제였다. 물론 도시재생 사업으로 깡깡이 문화마을이 다시 살아났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소음, 쓰레기와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는 관광지로 영도를 방문하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며, 사진을 찍고, 들여다보는 것이 큰 고민일 것이다(참여자 6).

다른 참여자는 영도의 특이한 문화경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경관이 나타난 원인을 다양한 지리적 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영도는 어떨까? 직접 가 보았던 현재의 영도에는 이 피난민의 흔적이 꽤나 많이 남아있었다. 해주슈퍼, 충남슈퍼 등 부산으로 피난을 왔음에도 버리지 못하였던 고향의 이름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피난민과 그 자식들 외에도 영도에 자리 잡은 외지인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실제 영도 조선소 근처를 가 본다면 한국 말만큼이나 많은 러시아어를 볼 수 있다. 영도와 육지를 오가는 버스의 요금함에도 러시아어로 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 길거리엔 보드가 병이 나돌아다니기도 하였다. 이같이 영도는 부산에 온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공간이었다.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항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었을 것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지가가 저렴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또 부산항, 부산역 등 일자리가 풍부한 부산의 도심지와 가까운 이유 역시 있었을 것이다(참여자 20).

상업적 요소의 분석을 통해 지역성을 탐색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깡깡이 마을에는 수리조선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유산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의미를 연계하고 심도 깊게 이해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특색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근대 산업의 유산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 분석을 통해 지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

다. 실제 깡깡이 마을을 돌아다니면 대부분 가게가 선박과 관련된 것이다. 엔진, 페인트, 어망 등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의 지역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보안을 치밀하게 한다는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 외국인 노동자가 다니는 모습, 어망 또는 파이프와 같은 부자재들이 한 귀퉁이에 쌓여 있는 모습은 조선수리소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참여자 10).

마지막으로, 인간 활동을 통해 역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에 대해 논의한 경우도 있었다. 지리학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이다. 동일한 공간적 조건을 가졌더라도 인간이 어떤 활동을 전개하는가에 따라 그 장소적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의 능동적 작용으로 형성되는 장소 및 경관에 대한 이해는 지리 지식의 본질적 측면에 다가설 수 있게 한다.

이번 지역을 다녀오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사람이 지역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지리’하면 자연지리를 떠올리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중 하나고, 그러나 이번에 답사한 깡깡이 예술 마을은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의 지역성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다나카 씨가 지은 조선소가 흥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깡깡이 마을의 지형은 매축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곳의 특징이 된다.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도시 재생 사업이 깡깡이 예술 마을을 새롭게 이미지화하고 있다. 많은 지리적 요소가 사람과 관련이 있다(참여자 10).

4) FPACK의 함양과 발현

예비교사들은 지리답사의 의미, 탐구의 본질, 지리 개념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의 수준을 높였다. 그리고 이들을 결합하여 FPACK을 함양하고 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FPACK의 세 요소를 고려하면서 의미 있는 교수학습전략을 고안하였다. 다음의 사례는 젠트리피케이션,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지리적 개념을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지리답사 맥락으로 적용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우리가 답사지로 선정한 장소 자체가 시끌벅적하고 사람들도 많다 보니 답사지에 가서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하는 활동이나 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하고 직접 보고 느끼는

답사에 초점을 맞추어, 감천문화마을과 남포동에서 오버투어리즘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점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고안하였다. 오버투어리즘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수업에서 배울 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서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느끼게 하고자 했다(참여자 12).

또 다른 활동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오버투어리즘이 나타나는 곳의 사진을 찍고 이유 적기, 백지도에 색깔로 표현하기, 경관 스케치하기를 넣었다. 이런 활동들을 활동지로 만들 때 글로만 쓰게 한다면, 당연히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 학생들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기분이 들게 활동지를 만든다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감천문화마을 활동지를 만들었다(참여자 14).

흥미로운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문화경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리답사 전략 개발에 고심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참여자는 음성에서 상징적 중요성을 지니는 지점과 그 의미, 경관적 중요도와 지형 고도의 관계 등을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기 위해 고민하였다. 특정 장소에서는 경관의 정신적 의미를 장소감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 또한 고안하였다.

우리는 학생들이 동래읍성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면서도, 동래읍성의 역사적 가치들을 어떻게 답사 활동 속에 녹여낼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해보았던 것 같다. 음성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곳은 동헌과 객사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을 답사의 시작점으로 선정했다. 학생들에게 동헌과 객사가 음성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면서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게 해야 했기 때문에 동헌 내 중요한 건물(현판 등)의 사진을 찍는 활동을 계획했다. 객사 터를 답사할 때는 이곳의 경사를 고려하여 사진을 찍게 하여 객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왜 객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했는지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송공단을 답사할 때는 송상현 공을 비롯하여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여러 선열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동래읍성에 대한 장소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았다(참여자 1).

장소에 대한 인간주의적 이해, 공감적 이해를 위한 전략을 지리답사 탐구 활동으로 기획하려는 시도도 주목할만하다. 이는 인간과 장소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의 구성을 실제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이었다. 아래에서 이런 맥락에서의 참여자 반응 두 가지를 살펴본다. 그림 3은 피난민의 정착지였던 답사지의 특성과 인간주의 지리학 관점에서의 공감, 내러티브 전략을 결합한 그림일기 활동과 예시답안을 보여준다.

답사를 다니면서, 영도지역에 대한 지식을 인간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다. 영도라는 지역이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 설명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시 지역 사람들의 삶을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지역 주민 삶의 입장에서 감정을 이입해보고, 그로 인해 장소에 대한 이해감이 증진될 것이다. 직접 걷고, 체험해보고, 느끼면서 얻을 수 있는 답사만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을 경험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참여자 4).

그림일기를 통해 영도 강강이 아지매들의 삶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정보와 배경지식이 없다면 일기를 그릴 수 없다. 장소를 삶과 관련하여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소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일기를 쓰는 것은 내러티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조원들끼리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참여자 16).

2. 반성적 성찰문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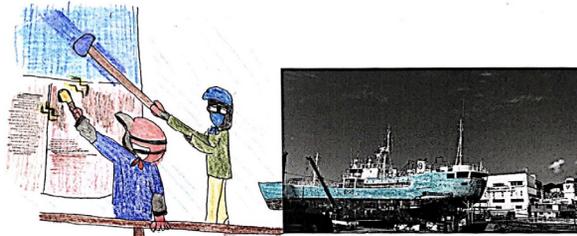
학생들의 성찰문을 압축적으로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그림 4)를 통해 본 연구의 전반적인 맥락, 그리고 앞서 논의한 성찰문의 주제 및 관련 용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워드 클라우드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는 앞선 질적 분석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워드 클라우드에 등장하는 용어에는 작은따옴표를 붙였다.

첫째, 지리답사를 기획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답사'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답사라는 용어를 활용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성찰했을 것이다. 눈에 띄는 용어로 '소리가 있는데 다가가 적 답사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던 강강이 마을과 소리를 활용한 답사 전략 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과 관련 있다

답사한 장소를 기반으로, 영도지역 사람의 삶을 반영한 그림일기를 그려봅시다.
 ① 직접 찍은 사이트별 사진을 포함하고, 연결하여 그릴 것
 ② 지역주민의 하루를 일기로 나타낼 것. 그림에 맞는 일기 내용을 구성할 것

* 관찰 : 피난민 → 조선산업

2020년 10월 14일



'강강' 코반도 울어 파는 이 소리는 60여년의 내 노동소리를 안채 주었다.

날 났다. 늦게 도착한 내가 그 무슨 일이냐고 쫓겨 다녔다. 다른 앞에서 작업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영도의 자랑, 조선산업! 그렇게 이츠름
 막이 걸린 조선산업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나도 오늘 작업할 판이 죽어 들어왔다.
 '강강', 이 소리는 무슨 의미를 뱉어 내 소리. '강강', 이 소리는 존재감을 뱉어 내 소리.
 함께 외치는 외치, 응징음과 그 사랑이다. '강강' 소리는 다 다르게 들리게 된다.
 그런 외치가 더 이상 이들에게 울지 않다면 한 번 울려 소수 울게 될 것이다.
 그야 다행인 것인데 외쳐야 할 코반도 리마케라 하여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편이 쉬운 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반인 양을 더하게 할 수
 있다. 그때, 나도 '강강' 소리를 내어 내게 나 여기 살아가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강강'

그림 3. 그림일기 활동과 예시답안



그림 4. 성찰문 워드 클라우드

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참여자들이 지리답사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탐구', '탐구적', '탐구형'과 같은 용어를 통해 참여자들이 탐구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하게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관련된 맥락에서 '고민'이라는 용어도 주요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측면에 걸쳐 여러 고민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탐구형 답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획'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또

한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학생들이 '생각'을 통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 조는 어떤 의도를 담아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를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프로젝트 활동이 참여자들에게 탐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지리답사, 지리적 탐구, 지리 개념과 '지식'의 이 해는 '지역', '장소', '사이트'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었

다. 이런 맥락에서 ‘부산’, ‘영도’, ‘깡깡이’, ‘동래’, ‘동래읍성’과 같은 구체적인 지명도 자주 등장했으며, 답사 활동 기획의 기초가 되었다. 이는 실제 장소를 바탕으로 한 답사 디자인 실행의 양상을 보여준다.

넷째, FPACK의 핵심은 지리답사의 교육적 활용이다. 이런 견지에서 ‘교사’, ‘학생’, ‘활동’, ‘수업’, ‘학교’, ‘교육’, ‘현장’, ‘학습’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한 탐구적 답사를 기획하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을 위해 고민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흥미’를 자극하고, ‘의미’ 있는 ‘참여’형 활동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예를 들어 ‘사진’찍기), 어떤 ‘질문’을 활용해야 할 것인지, ‘경로’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자료’를 이용해 학습의 ‘과정’을 의미 있게 할 것인지, ‘시간’의 제약이나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지리답사를 디자인했을 것이다. 이는 참여자들이 본 프로젝트를 통해 FPACK을 함양하고 발현하는 모습이었다.

V. 논의 및 결론

FPACK은 지리학 콘텐츠, 교수학습전략, 지리답사를 건설적으로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지리답사를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이다. 지리교육의 특징적 교육학인 지리답사를 의미 있게 교육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리교사들의 FPACK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 예비교사들이 학생활동 중심의 탐구적 지리답사를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해당 활동이 FPACK 함양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지리답사의 의미·유형·경향 소개, 탐구적 지리답사의 디자인 고려사항 논의, 지리답사 모델링, 참여자들의 지리답사 기획 및 성찰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프로젝트 마무리 후, 참여자들이 제출한 반성적 성찰문을 반복적 내용분석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분석하여 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반복적 내용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이 FPACK의 주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지리답사, 탐구, 지리 지식의 본질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이들을 의미 있게 결합하여 FPACK을 함양하고 발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들은 답사의 함의, 유형, 유용성 등을 포함하여 현장 답사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상

적인 탐구의 모습과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제약 등을 생각하면서 탐구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답사에 도입할 지리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면서 지리 지식에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지리답사, 탐구, 지리 개념의 건설적 결합을 통해 탐구기반 지리답사를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성적 성찰문 텍스트를 활용하여 생성한 워드 클라우드 역시 반복적 내용분석의 테마들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양한 맥락에서 ‘답사’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활용하였고, ‘소리’와 같은 용어의 활용을 통해 다감각적 답사에도 관심을 보였다. ‘탐구’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자주 사용하였고, ‘지역’과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의 맥락 속에서 지리답사, 지리탐구, 지리 지식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학교’, ‘현장’ 등과 같이 교육적 맥락과 관련된 용어의 빈번한 활용과 더불어 ‘흥미’, ‘참여’, ‘자료’ 등과 같이 탐구형 답사 기획과 연계될 수 있는 용어 또한 자주 사용하였다. 이는 FPACK의 함양과 발현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지리답사와 관련된 교사 전문성인 FPACK을 개념화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지리교육의 특징적 교육학으로 지리답사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 교육적 잠재력에 비해 지리답사가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얼마나 도입되었는지 혹은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우려에는 다양한 요소가 관련되지만 지리답사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부족한 전문성이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동할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리교사들이 지리답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도입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지리답사의 교육적 효과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속에서,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고양하는 지리답사를 실현하는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FPACK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학습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본 연구는 FPACK 개념을 구체화하고 탐구적 지리답사 디자인 프로젝트 전략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지리 지식의 이해와 적용을 탐구라는 교수학적 철학

을 통해 구현한 지리답사를 본인 스스로 경험해 보지 못한 교사들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탐구에 기반한 지리답사를 유능하게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저 희망일 뿐이다.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효과적인 탐구기반 지리답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유연하게 자신만의 지리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처럼 능동적으로 지리답사를 디자인하도록 하는 활동은 예비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 학생들을 위한 지리답사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리교육의 대표적 학습법인 지리답사의 가능성을 실제화하기 위해 지리교육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註

- 1) 심리지리학은 지리학과 심리학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발길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도시 공간을 탐색하는 지리답사의 새로운 전략이다(Coverley, 2018). 교육학적 맥락에서의 심리지리학 논의는 Bassett (2004), Kim(2021)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 2) 이곳의 은행 운영 시간은 화요일~토요일 13:00-21:00, 일요일과 공휴일 11:00-20:00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을 돕기 위해 다른 지역 은행과는 운영 시간이 다르다.
- 3) 배의 녹, 이물질 등을 망치로 두들겨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를 ‘깡깡’으로 표현하고 이를 모티브로 마을의 별칭을 깡깡이 마을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김민성·김종근, 2021, “탐구적, 다감각적 지리답사 전략: 부산시 영도를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1(1), 56-74.
 이종원, 2016, “21세기 역량 개발을 위한 야외조사활동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99-117.
 Bassett, K., 2004, Walking as an aesthetic practice and a critical tool: Some psychogeographic experiment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8(3), 397-410.

Casinader, N. and Kidman, G., 2018, Fieldwork,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education: The centrality of geographical inquiry, *Austral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4(1), 1-17.
 Coverley, M., 2018, *Psychogeography, 3rd ed.*, Harpenden, UK: Oldcastle Books.
 Crippen, K.J. and Archambault, L., 2012, Scaffolded inquiry-based instruction with technology: A signature pedagogy for STEM education, *Computers in the Schools*, 29(1-2), 157-173.
 Dickerson, D.L., Dawkins, K.R., and Annetta, L., 2007, Scientific fieldwork: An opportunity for pedagogical-content knowledge development, *Journal of Geoscience Education*, 55(5), 371-376.
 France, D. and Haigh, M., 2018, Fieldwork@ 40: Fieldwork in geography higher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2(4), 498-514.
 Fuller, I., Edmondson, S., France, D., Higgitt, D., and Ratinen, I., 2006,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effectiveness of geography fieldwork for learning,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0(1), 89-101.
 Golubchikov, O., 2015, Negotiating critical geographies through a “feel-trip”: Experiential, affective and critical learning in engaged fieldwork,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9(1), 143-157.
 Holloway, P., Kenna, T., Linehan, D., O'Connor, R., Bradley, H., O'Mahony, B., and Pinkham, R., 2021, Active learning using a smartphone app: Analysing land use patterns in Cork City, Ireland,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5(1), 47-62.
 Houser, C., Brannstrom, C., Quiring, S.M., and Lemmons, K.K., 2011, Study abroad field trip improves test performance through engagement and new social network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5(4), 513-528.
 Kim, M., 2018, Project-based community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technologie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2(1), 61-79.
 Kim, M., 2021, The pedagogical effects of psychoge-

- graphic urban exploration and mapping, *Geography*, 106(2), 92-100.
- Kim, M., 2022, Developing pre-service teachers' fieldwork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through designing enquiry-based fieldwork,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6(1), 61-79.
- Kim, M. and Shin, J., 2016, The pedagogical benefits of SimCity in urban geography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115(2), 39-50.
- Komoto, C., 2009, Moving toward a signature pedagogy, in Gurung, R.A., Chick, N.L., and Haynie, A., eds., *Exploring Signature Pedagogies: Approaches to Teaching Disciplinary Habits of Mind*, Sterling, VA: Stylus Publishing, 121-138.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Marvell, A., Simm, D., Schaaf, R., and Harper, R., 2013, Students as scholars: Evaluating student-led learning and teaching during fieldwork,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7(4), 547-566.
- Mires, P.B., 2004, Teaching geographic field methods to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technicians, *Journal of Geography*, 103(1), 8-15.
- Neale, J., 2016, Iterative categorization (IC): A systematic technique for analysing qualitative data, *Addiction*, 111(6), 1096-1106.
- Oost, K., De Vries, B., and Van der Schee, J.A., 2011, Enquiry-driven fieldwork as a rich and powerful teaching strategy: School practices in secondary geography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20(4), 309-325.
- Park, Y., 2022, A GPS-enabled portable air pollution sensor and web-mapping technologies for field-based learning in health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6(2), 241-261.
- Phillips, R. and Johns, J., 2012, *Fieldwork for Human Geography*, London: Sage.
- Reilly, K., Clavin, A., and Morrissey, J., 2016, Participative critical enquiry in graduate field-based learning,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0(1), 104-116.
- Sauer, C.O., 1956, The education of a geographe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6(3), 287-299.
- Seow, T., Chang, J., and Irvine, K.N., 2019, Field-based inquiry as a signature pedagogy for geography in Singapore, *Journal of Geography*, 118(6), 227-237.
- Shulman, L.S., 1986,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15(2), 4-14.
- Shulman, L.S., 2005a, Pedagogies of uncertainty, *Liberal Education*, 91(2), 18-25.
- Shulman, L.S., 2005b, Signature pedagogies in the professions, *Daedalus*, 134(3), 52-59.
- Wang, M., Wu, J., An, N., and Lin, M., in press, The effect of emotional experiences in fieldwork: Embodied evidence from a visual approach,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 Wright, S. and Hodge, P., 2012, To be transformed: Emotions in cross-cultural, field-based learning in northern Australia,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6(3), 355-368.
- 교신 : 김민성,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geomskim@snu.ac.kr)
- Correspondence : Minsung Kim,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geomskim@snu.ac.kr)
- 투고접수일: 2022년 10월 19일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14일

